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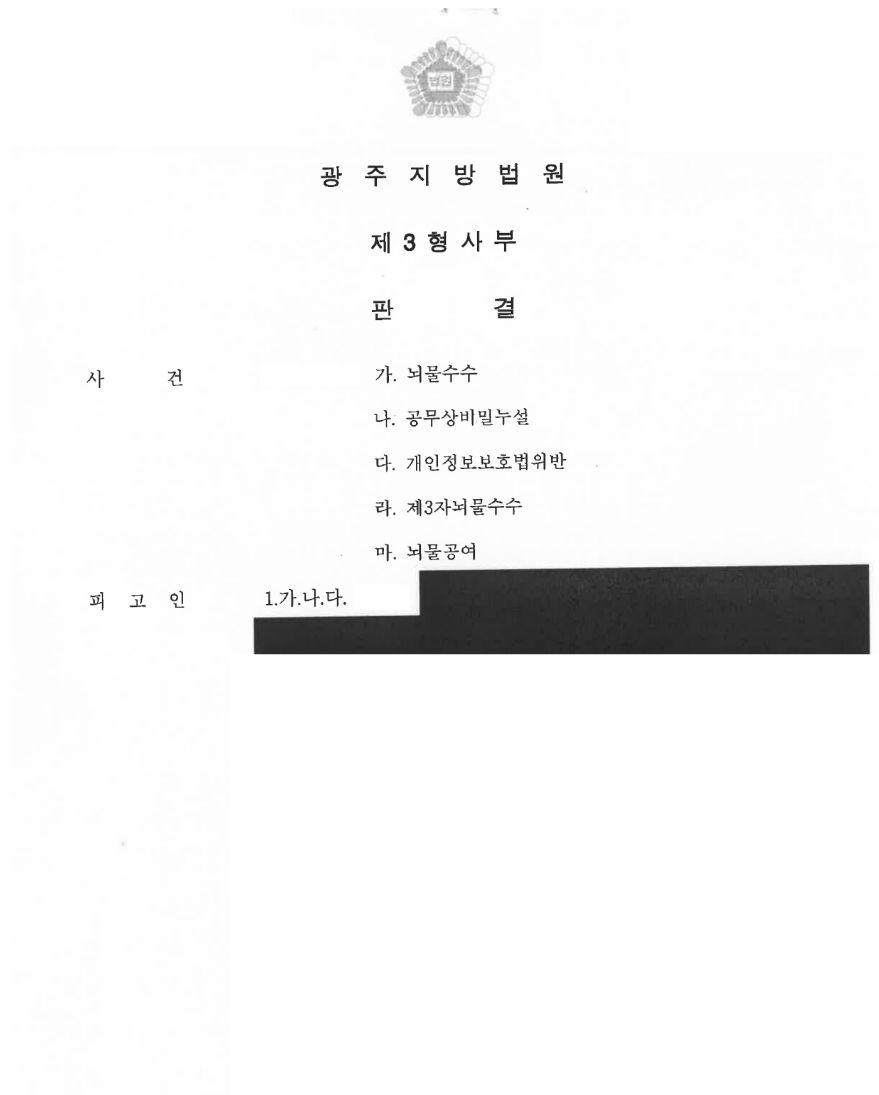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검사, 해율은 그 항소를 막았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 선고유예 유지

선고유예 유지

제3자뇌물수수 · 의뢰인에 대한 원심 양형 유지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에 각 처한다.	각 벌금 8,000,000원
피고인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
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대한 자격정지형 및 피고인
피고인	대한 형의 각 선고를 유예한다.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피고인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제3자뇌물수수 사건에서 1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미 받은 선처가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재판받은 여러 사람의 책임과 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의뢰인 개인에게 해당하는 사실과 양형 사정을 구분해서 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목표는 원심의 선고유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항소심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와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한 태도, 직접 해당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 공여된 이익이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된 측면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검토했습니다. 혐의 이름만으로 형을 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제 경위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제3자뇌물수수 · 의뢰인에 대한 원심 양형 유지

형사재판 앞의 불안, 실제 결과를 가진 해울과 마주하십시오.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해울은 항소를 막고 의뢰인의 결과를 지켰습니다.

-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면?
- 기부나 지원금이 뇌물 문제로 번져 재판을 받는다면?
- 여러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아 내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과 함께한 소송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항소심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여러 양형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그 판단을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성과는 더 무거운 형을 요구한 검사의 주장이 의뢰인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했습니다. 여러 피고인의 결과가 달랐지만, 해율 의뢰인에 대한 판단은 선고유예 유지였습니다.

선고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과 다른 결과입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받은 선고유예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냈다는 데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해율은 항소를 막고 의뢰인의 결과를 지켰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선고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해율은 항소를 막고 의뢰인의 결과를 지켰습니다.

- 직접 받은 돈이 없어도 제3자뇌물 혐의를 받았다면?
- 직무와 지원금 사이의 관계가 형사 쟁점이 됐다면?
- 처음 받은 선처를 항소심에서도 지켜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